

민주·지역 국회의원 수영대회 지원 한목소리 내야

정부 “지원 않겠다”에 침묵일관 지방의회 적극 대응과 대조 ‘비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정부가 예산지원 불가 방침을 표명한 데 대해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작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회 유치과정에서 ‘정부 보증서 위조’ 파문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 나오긴 했지만, 정부가 사실상 이를 명분 삼아 대회 유치 방해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꼼수를 보인 정부’의 태도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과 ‘공문서 위조’ 논란이 시작된 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또한 ‘공문서 위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일 김영근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정부가 대회 유치 당일 공문서 위조 고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을 뿐 이후 적극

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인 박해자(서구 갑) 의원과 임내현(북구 을) 광주시당위원장만이 목소리를 냈을 뿐이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개최지 발표 5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이미 지난 4월에 소명된 총리 사인 문제를 언론을 통해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국제행사 무산과 예산지원 불가입장 등을 밝힌 것은 국내·외적으로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 또한, “유치신청서 최종본에 조작된 서류가 아닌 정부보증서 원문이 첨부됐기 때문에 개최지 선정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

는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하지만, 이처럼 의원 개인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문서 위조 파문’에 따른 정치적 선택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 임내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요청으로,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 6명 중 5

명이 만났지만, “성명서 발표 등은 의미가 없고, 정부 예산지원과 관련해 문공부 등과 협의를 갖는 등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보증서 위조 사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국비지원 등의 문제는 지역 정치권이 통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이 힘을 때려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찾아 ‘민주당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광주가 정작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MB 실소유 논란’ 다스, 美에 대규모 투자

아들 이시형씨 관여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가 미국 남부에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연합뉴스의 현지 취재 결과 다스는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최근 앨라배마주 수도인 몽고메리에 자동차 시트 제조공장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비용으로 3700만 달러(한화 400억원)가 투입됐으며, 시공사는 미국 회사인 마살이 선정됐다.

다스는 공장 완공 시점에 직원 3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총 400명으로 북미 생산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2002년 몽고메리에 완성차 공장 건설에 착수한 현대자동차를 따라 미국에 진출한 다스는 몽고메리 북쪽 클

랜턴에 공장을 세워 현대차 공장보다 인근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에 카시트 부품을 납품해왔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공급 물량이 달라져 공장 설비 증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의 현지 투자는 다스가 현대차의 2차 협력업체임에도 로버트 벤틀리 앨라배마 주지사 등 유력 장·재계 인사들이 기공식에 대거 참석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기대감을 낳고 있다.

현지 한인사회 인사는 “이번 사업은 대통령 아들(시형 씨)이 직접 챙겼다는 게 지역사회에 정설”이라고 말했다. 다스 측도 해외 공장 건설이 시형 씨의 담담 업무로서 앨라배마주에 자주 들른 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시형 씨는 2010년 다스에 해외영업 담당 과장으로 입사한 지 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했고 현재는 회사의 미래를 설계하는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합뉴스



참전 유공자에 박수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호국영웅기장을 받은 박희모 6·25 참전유공자회장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생존 국군 참전유공자 18만 명에게 ‘호국영웅기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와 평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北, 정전 60주년 열병식

북한이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60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했다. 북한이 정전 기념일에 열병식을 개최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며,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가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방북 중인 리위안차오(李源潮) 중국 국기부주석,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주석단에서 열병식을 지켜봤다.

/연합뉴스

정부, 개성공단 ‘마지막 회담’ 北에 제의

류길재 “재발방지 담 없으면 중대결단”

5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 지원 승인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을 경우 ‘중대결단’을 내릴 것임을 천명하면서 북한에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마지막으로 29일 제안기로 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더 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회담을 (북한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는 6차 개성

공단 실무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사실상 최후통첩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9일 관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류 장관은 “지난 6차례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다시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것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너무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와 같이 기본적인 약속조차 거부하였고 또다시 정치·군사적 논리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회담의 ‘급’과 관련된 질문에 “여섯차례 열렸던 회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변, 당국 실무회담 7차회담 제의를 의미하는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취할 ‘중대 결단’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이날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류 장관은 “내일(29일) 5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에서 하는 대북지원과 달리 유니세프를 통한 지원에는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 지원을 승인한 것은 지난 3월 유진별 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 이후 4개월 만이며,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카터 전 美 대통령 곧 방북”

美 자유아시아방송 보도

여류 케네스 배씨 석방 논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미국시간) 전했다.

RFA는 복수의 인권 관계자를 인용, “카터 전 대통령이 곧(very soon)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북한에 여류 중인 미국 시민권자 케네스 배씨의 석방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 관광객들을 데리고 함경북도 나진으로 들어갔다가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특별교화소(교

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게 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FA는 북한의 카터 전 대통령 초청은 북미간 양자대화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방북이 북미관계의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94년 북한 핵개발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국면을 풀려고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면담했고, 2010년 8월에는 평양을 찾아 불법 입국죄로 수감돼 있던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콕스 씨를 데리고 귀국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5년간 복지사업에 지방비 13조 추가 소요

예산정책처 지적

중앙정부가 기초노령연금 도입,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 지출을 늘릴 때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2013~2017년 주요 복지사업에 13조 7000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기초연금도입에 17조

원, 영유아 무상보육·양육에 11조 8000억 원 등 복지사업에 총 79조 3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제도가 확대되면 지방비 지출소요도 늘어난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가 167조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향후 보건·복지·노동 분야 추가소요에 대한 재원마련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 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회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한우전문점 점장 모집

남평을 “솔향기맑은터” 한우전문점에서 근무하실
용모단정하신 점장을 모집합니다.

호텔경력자 또는 관리경력자 45세미만 남·녀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퇴직금, 월4회 휴무
이력서(사진), 자기소개서 지참 면접
문의 010-7570-7525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짜기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횡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기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 사 모 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0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창동 창고용지(생산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 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